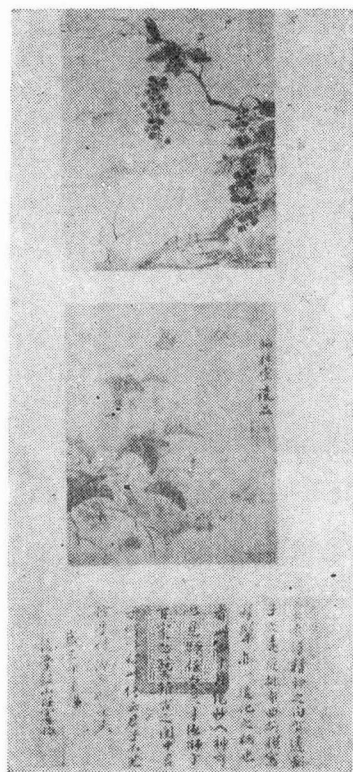


② 前記『孝章世子年譜』에 依하면 孝章世子가 英祖四年 戊申年에 죽었으므로 『善可法』을 編纂한 英祖十三年은 丁巳年이 된다. 그러므로 英祖가 『善可法』을 編纂한 것은 莊獻世子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申思任堂의 小品軸

崔 淳 雨

近者에 國立博物館이 新收한 書畫中에 申思任堂의 小品軸 하나가 있다. 元來 畫帖에서 떼어낸 것으로 보여지는 폭 一八·二cm 길이 二三cm 의 조그만 片畫 두장에 鼓山 任憲晦의 題拔 한장을 합쳐서 簇子로 表具한 것이다. 罽은 韓紙에 하나는 葡萄圖를 다른 하나는 草虫圖를 그린 것인데 女性다운 솜씨나 그 氣品이 세상에 흔히 나도는 申夫人筆이라는 것과 是 種類가 다른 듯해서 소개해 둔다. 罽위의 葡萄圖에는 左下端에 平山氏申 라는 두개의 印款이 적혀있고 左上端에는 蓮白觀이라는 印識이 있는데 이것은 勿論 白蓮 池雲英 것이다.



이 그림은 水墨으로만 濃淡을 가려서 그린 포도 罽들에 날아드는 꿀벌 한마리를 配한 것으로서 그 情愛가 깊은 섬세한 분위기나 飛白을 남기며 闊達하게 그은 줄거리와 布置의 妙等 그 어느 점도 소홀함이 없다고 하겠다.

다음 그림은 오이냉물에 기여드는 메뚜기 한마리를 配圖한 草虫圖인데 亦是 淡墨調의 水墨畫이다. 오이냉물을 向해서 질어가는 메뚜기 한마리의 姿勢가 閑庭의 분위기를 잘 支配하고 있으며 오이냉물과 그 인물은 淡墨, 葉脈은 濃墨으로 線描하고 있다. 이 草虫圖의 右肩에는 行書로 『師任堂遺品』이라 墨書하고 그림에 審定이라는 方印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아마 趙滄江의子 梅窓 趙之耘의 鑑識印記라고 생각된다. 梅窓은 仁祖十五年(一六三七) 丁丑生으로서 申夫人(中宗七年一, 五二生)보다 百二十餘年 後輩이다. 이 款記아래로 그림 右下端에 먼저 葡萄圖에도 적힌 것과 同一한 池白蓮의 印款이 적혔고 다시 左上端에는 罽라고 보여지는 작은 方印이 적혀 있는데 이 小方印은 梅窓의 方印과 그 印朱色이 비슷해 보인다.

끝으로 任鼓山の 題拔은 唐紙로 생각되는 胡粉, 靛인 종이에 行書로서 十行에 걸쳐 墨書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畫者得精神之向背透影子之遠近排布曲折模寫髣髴亦一造化之柄也看此四十片絕妙入神可以見思任堂之才德師千百家之藝雖古之闔中君子何以到此傳云君子不哭信乎婦德亦如是夫

歲己卯 重陽 後學 鼓山 任憲晦』

이 題拔의 右下端에는 枯葉形雅印 하나가 적혀 있는데 確實하게 判讀할 수 없으나 아마 鼓山 인듯하고 左下端 이름 아래에는 任印 라는 큰 方印이 적혔으며 이 拔記의 中央에는 忠翊이라는 方七, 八cm나 되는 큰 官印이 적혀 있다. 이 官印은 追後에 적힌 것으로 생각되며 아마도 그 所藏由來를 나타내려고 試圖한 듯하나 이것은 論外로 할 밖에 없다. 이 拔文中에 「看此四十片 絕妙入神」이라는 句節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小品 두 점은 元來 四十幅으로 된 思任堂 小品帖에서 分散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題拔의筆者任憲晦는豊川任氏,字는明老, 그의號로 鼓山,全齋 希陽齋 등이 있으며 元來 梅山 洪直弼의弟子였고,純祖 辛未(一八一)에 낳아서 高宗十三年(一八七六)에 六十歲로 卒했으며 哲宗代에 經筵官을 거쳐서 大司憲에 이른 有數한 學者로서 鼓山集 三十 四卷, 鼓山續集 四卷 等の 著書를 남기고 있다.

## 慶州 出土 三尊 博佛의 또 한 例

秦 弘 燮

博佛 如來三尊像이 慶州에서 出土되어 本誌 第一號에 紹介된 바 있거니와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다른 三尊博佛 三點이 發見되었음으로 여기 一括하여 紹介하고자 한다.

이 三點의 博佛은 모두 完形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一點은 中尊佛을 包含한 右半만이 남았고 그 위에 如來, 脇侍 共히 頭部를 欠하였으며 一點은 같은 瓦質로서 頭部가 없는 中尊뿐이며 다른 一點은 四片으로 破損되었으나 脇侍를 包含한 右端만이 남아있다. 따라서 三點을 綜合해도 左端은 全然 알 수 없으나 中尊 左側에 左脇侍의 衣紋이 보이고 그 形式이 右脇侍와 同一한 것으로 보아 原來는 左側도 右側과 같은 形式을 한 三尊 博佛임을 알 수 있다. 또 이 三點은 그 彫刻手法이 同一하여 같은 型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 三點을 前出 博佛과 比較하면 形態나 彫刻手法이 다를뿐 아니라 三層塔形이 刻出된 點은 前例가 없었던 만큼 매우 貴重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三點中 二點은 色은 赤褐色이고 다른 한 點은 灰色이 많이 섞인 瓦質이다. 높이 二・六・五cm 넓이의 復原值 約 四〇cm, 두께 一・五cm의 方形 博佛으로 表面中央에 如來坐像을 그 左右에 脇侍立像을 다시 兩端에 三層塔形을 各各 配置하였다.

中尊은 須彌座上에 結跏趺한 坐像으로 頭部는 二點 모두 없어서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를 알 수 없다. 身光은 二重 同心圓으로 表示하였으며

圓의 形으로 보아 頭光도 있지 않았는 推測된다. 法衣는 右肩偏袒하였으

며 右手는 가슴 앞에서 槓指와 中指를 대었고 左手는 臍前에서 外掌하고 있다. 衣端은 무릎 밑에서 中央과 兩端의 三處에 만 늘어져서 座台를 덮었다. 座台는 複瓣 仰蓮과 伏蓮을 彫刻한 사이에 眼象 二座를 刻出한 身部를 두었고 仰蓮 위에는 句欄形이 있으며 밑에 따로 上面을 四十五度の 斜線으로 깎은 台形이 있어 下邊과의 사이에 약 1cm 間隔을 두었다.

脇侍像은 右脇侍만이 남았으나 中尊 左端에 보이는 左脇侍의 天衣紋이라고 짐작된다. 右脇侍像은 單瓣蓮花上의 立像으로 若干 中尊쪽으로 몸을 틀었고 圓形 頭光이 表示되었다. 顔面은 磨滅이 甚하여 表情을 알 수 없으나 눈고리가 위로 치켜올라간 것으로 보아 怒形같이 보이며 머리는 위로 상투 모양으로 틀어 올렸다. 腹前에는 裙衣의 紐帶가 보이고 매우 얇은 天衣가 下肢를 덮었고 左右로 衣端이 길게 늘어졌으며 兩下肢 사이에 주름이 보인다. 左手는 胸前에 들었으며 右手는 옆으로 늘어뜨리

